

변호사시험 합격기

[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

“결국 모두 이루어진다!!”

진 선 우

- 명지고등학교
-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 학점은행제 행정학사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 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



I. 들어가는 글

우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 1차 합격의 경험이 있는 소위 ‘사시반’이 상당수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사시반’에 해당되며 법학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학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과는 수험 공부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II. 변호사시험 공부 시작 시기

매해 1600여명의 변호사가 변호사시험합격으로 배출됩니다. 그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학년까지 평소에 관심이 있

었던 대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가급적 다양하고 많은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였고, 학생회, 학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자활동 및 방통대 편입과 학점은행을 통한 학위 취득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2년 동안 제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 공부는 2학년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출문제도 역시 이 시기에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고시와 달리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5일의 시험기간 동안 한꺼번에 보는 시험입니다. 즉 사법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기록형 시험이 없습니

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이를 모두 한꺼번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대비 준비해야 할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2학년까지 학교 교과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II. 변호사시험 공부의 전체적 전략

저는 우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과 시험평가방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87.25%의 합격률을 보였던 제1회 변호사시험 이후, 그 합격률은 매해 떨어져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1.45%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로 변환으로 그 점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 문형 (배점) | 문형 (배점) | 문형 (배점) |
|----------------------|---------------|---------------|---------------|
| 공 법 | 선택형 (100점) | 사례형 (200점) | 기록형 (100점) |
| 형사법 | 선택형 (100점) | 사례형 (200점) | 기록형 (100점) |
| 민사법 | 선택형 (175점) | 사례형 (350점) | 기록형 (175점) |
|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 사례형 (160점) | | |

변호사시험 배점은 위와 같습니다. 작년 제 6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컷트가 889.91점이었고, 합격률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올해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선은 900점 내외로 예상하

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례형과 기록형의 점수를 모두 상위50%에 상응하는 점수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면, 합격선에 필요한 선택형의 개수는 대략 100개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기출쟁점 위주의 공부와 최신 판례를 추가하면 상위 50%에 상응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장에 가지고 갈 교재, 즉 시험 직전에 볼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한 교재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쟁점이나 변경된 조문과 판례를 가필하여 저만의 교재로 만들었으며, 이를 계속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IV. 유형별 공부 방법

1년의 수험기간동안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 우선 '수험 공부량 줄이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각 과목별 기본서는 참고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시험장에 가지고 갈 교재는 기출문제집과 최근 3개년 판례집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변호사시험과 전국모의고사 문제가 상당수 누적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은 거의 다 나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부의 양을 줄여 시험 직전까지 최대한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출문제집은 UNION, 아우라, 메가로이어스 등 다양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저는 기록형 문제를 제외하고는 수험생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출판사 중 하나인 UNION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출문제집을 보면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쟁점이 많기 때문에 1회독 이후 반복 쟁점을 제외하면서 양을 상당수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1. 선택형 문제

UNION 출판사 「기출지문·3개년 최신판례」를 봤습니다. 일명 ‘기지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OX문제형’입니다. 5지선다형 문제를 보는 경우,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회독수를 늘리고, 반복되는 문제를 생략하기 위해 OX문제가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택형 문제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 과목별로 모두 본 뒤, 다른 과목을 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즉 공법을 다 본 뒤 형사법, 민사법 순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각 과목에 있어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출제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 3과목 1회독 하는 시간을 길게 두는 경우, 기억력의 한계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처음 전체 3과목을 1회독 할 때는 2개월의 기간을 잡고, 그 뒤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면서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2. 사례형 문제

UNION 출판사 「사례형 기출 문제집」을 선택했습니다. 일부 진도별 사례형 문제집이 있는데, 사례형의 경우, 쟁점이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출 문제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가. 공법의 경우

[1] 공법은 헌법과 행정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경우 김유향 강사의 「[핸드북] 로스쿨 헌법 핵심정리 300」을, 행정법의 경우는 정성균 강사의 「행정법 엑기스」를 기본서로 보았습니다.

[2] 공법의 경우,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내 주요판례 특강 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해 보충하였습니다.

나. 형사법의 경우

[1]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법은 이용배 강사의 「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를 기본서로 하였으며, 형사소송법은 신광은 강사의 「Law School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로 보았습니다. 이외 형사특별법도 출제영역인데, 이 부분은 교내 형사특별법 수업자료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사례형 문제 뿐만 아니라 기록형 문제에도 빈출되고 있어, 관련된 교특법과 특가법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2] 형법의 경우는 크게 판례문제와 이론문제가 출제되는데, 대부분의 판례 문제는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론 문제는 착오의 문제가 빈출됩니다. 특히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3] 형사소송법도 판례문제가 빈출되고 있는데, 그 이외 증거법 파트 부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증거법에 관련된 판례와 조문을 보다 중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방대한 실체법을 공부하느냐 형사소송법에 대해 다소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사례형 문제는 표준점수로 전환하여 그 점수를 상대화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형사소송법을 전략과목으로 선택하여 공부하였고, 그 결과 71.27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다. 민사법의 경우

[1] 민사법의 경우,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상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례과목이 200점인 것에 비해, 민사법은 350점 배점입니다. 또한 1문과 2문은 민법과 민소법이 혼용되어 출제되는데, 3문은 상법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형 문제 공부 방법과 달리, 민사법은 각 과목별 1회독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즉,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에 있는 민법을 모두 공부한 뒤, 그 다음 민소법과 상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쟁점이 어디서 반복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회독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민법과 민소법의 경우 모두 박승수 강사의 교재를 기본서로 보았습니다. 사례문제의 경우 판례의 문제가 빈출되므로 중요 쟁점의 판례 위주로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3] 상법의 경우는 장원석 강사의 「상법의 정초」를 기본서로 보았습니다. 상법의 경우 빈출되는 쟁점이 있으며, 특히 관련 쟁점마다 조문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같은 이유로, 상법을 전략과목으로 선택하였고, 그 결과 64.2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3. 기록형 문제

기록형의 문제는 다른 문제유형과 달리 강사 저서로 기출문제를 보았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문제도 수업시간 내 교수님이 강조한 문제만 보았습니다.

기록형의 문제 경우, 문제지 수가 많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 답안 작성에 필요한 포인트

를 어디에서 찾는지, 그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 기출문제풀이 연습을 가급적 빠짐없이 참여하였으며, 그 이외 시간 내 메모지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등 시간 분배에 신경을 썼습니다.

가. 공법의 경우

[1] 강성민, 정선균 강사의 「공법기록 엑기스」를 기본서로 보았습니다. 이 교재는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요 쟁점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공부하는 데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공법 기록의 경우, 형식적 기재사항 이외는 사례형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빈출되는 공법소송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소송의 적법요건을 정확히 암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 형사법의 경우

[1] 수업시간 내 교수님이 제공해주신 기록형 자료집과 노수환 교수님의 「오로지 변시고 득점을 위한 핵심 형사기록」을 기본서로 보았습니다.

[2] 형사법 기록의 경우,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며, 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각 1문이 출제되었습니다. ① 《변론요지서》의 경우, 결론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변론을 하는 경우이므로 결론을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변론에 관련하여 필수적 알아야할 쟁점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반면 ② 《검토의견서》의 경우, 유·무죄의 결론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결

론이 틀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서에 있는 형법의 주요 각론 판례를 꼼꼼히 공부하였습니다. 그 이외, 기록형 문제에는 증거법 문제가 거의 빠짐이 없이 출제되므로 관련 조문과 주요판례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다. 민사법의 경우

[1] 민사법의 경우, 형사법 기록과 마찬가지로 수업시간 내 교수님이 제공해주신 기록형 자료집과 강성민 강사의 「민사기록 엑기스」를 기본서로 보았습니다. 또한 요건사실론 수업을 통해 주요 요건사실을 공부하였습니다.

[2] 민사법 기록은 형식적 기재사항 이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잘 작성하여야 하는데, 특히 청구취지에 대한 배경이 큼니다. 따라서 빈출되는 청구취지를 정확히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원인의 경우, 빈출되는 쟁점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4. 선택법 문제

선택법에는 경제법, 국제거래법,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환경법 총 7개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법 과목의 경우도 다른 사례형 과목시험과 동일하게 표준점수전환제 방식으로 그 점수를 상대화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제6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3,110명 중 44.92%에 달하는 1,397명이 ‘국제거래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다수의 응시생들이 보는 ‘국제거래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표준점수전환제 방식에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승현 강사의 「로스쿨 국제거래법」을 기본서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례형 문제와 마찬가지로 UNION 출판사「사례형 기출 문제집」만 풀었으며, 특히 조문집을 꼼꼼히 공부하였습니다. 국제거래법의 경우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고, 시간이 맞지 않아 학교 수업도 듣지 못하였지만, 조문수가 적고 민법과 유사하여 접근하는 면에서 용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V. 마무리하는 글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입학을 하였지만, 입학 후 하니 또다시 졸업 후 어떤 변호사로 살아갈 것인가의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 교수님 한 분이 2년 동안 앞으로 변호사로서 필요한 스펙을 쌓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을 해주셨고, 저도 그에 동의해 열심히 대내·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기관에서의 실무경험과 학회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재학 중에 학점은행으로 행정학사 학위(사회복지학 전공)와 다수의 자격·수료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예정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해 계속 떨어져, 제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9.35%입니다. 그러나 합격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합격자’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춰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합격자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집만 반복하여 공부하면서 그 이외 다른 쟁점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불안감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위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아주 어려운 문제는 다른 수험생들도 답안을 잘 작성하지 못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출에 없던 쟁점은 과감히 제외시켰고, 오히려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6월, 8월, 10월 전국모의고사이외 2월, 4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총 5번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전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여 저는 짧은 수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00점 이상의 비교적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사법고시 1차 합격의 경험이 있고, 법학사 출신이어서 가능했던 공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수험준비를 하면서 느낀 바는 공부 진도 속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법학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위와 같이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합격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기출 분석과 함께 관련된 쟁점과 최신판례 위주로 반복학습을 한다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시험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합격의 기쁨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 준 부모님, 두 남동생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하는 동안 정신적 지지와, 학업적으로 도와주신 양종모 교수님과 서보건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방황하던 저에게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신 이상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응원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산소 같은 인권 토크’ 라디오 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변호사시험 기간 내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도시락과 간식을 챙겨준 학생회 여러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힘든 수험생활을 함께 보낸 민호, 지연, 병찬, 종대, 그리고 현우 선배, 고맙고 우리 항상 행복하자! 그리고 은경아, 정말 고맙다. 마지막으로 합격수기 기회를 주신 고시계 편집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